

올 근로장려금 52만가구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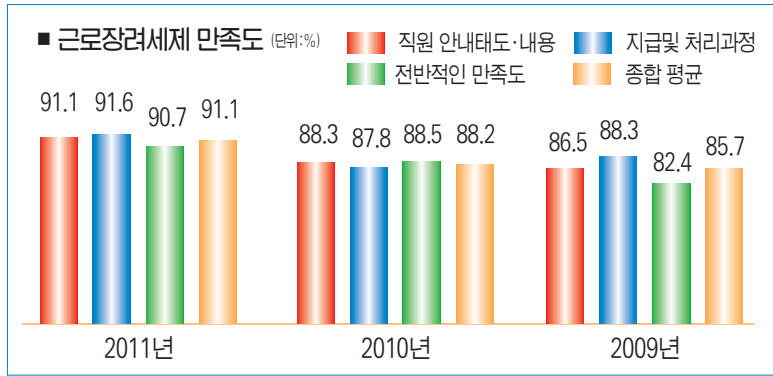
국세청, 4020억원 지급...신청자 91% '만족'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66만7천700가구에 대한 심사를 벌여 광주·전남북 7만5000명을 비롯한 총 52만2000가구에 402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2009년 이 제도가 도입된 뒤 누적 지급액은 1조2926억원이며 168만가구에 혜택이 돌아갔다.

국세청은 또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 지난 10월 근로장려금 신청자 10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1.1%가 제도에 대한 안내, 상담태도, 지급 및 처리과정, 근로장려금 지원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46.9%가 '세무서 발송 안내문'을 꼽았고 인터넷 광고와 기사, 주위사람, TV와 라디오, 국세청 홈페이지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방법은 44.7%가 방문, 41.4%가 인터넷, 6.7%가 우편이었다.



4%가 인터넷, 6.7%가 우편이었다.

'근로장려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생활비가 69%로 가장 많았고, 자녀 교육비(25.4%), 부채상환(3.1%), 저축(1.2%) 순으로 매년 생활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9년과 비교하면 생활비가 60.8%에서 69%로 높아지고 자녀 교육비는 30.7%에서 25.4%로 낮아져 근로장려금 신청세대의 생활고가 갈

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반증했다.

국세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및 지급 업무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부양자녀수에 따라 수급대상과 지급액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전화 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전화 신청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근로장려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 제도개선을 해 나갈 방침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은행 미래 책임하겠습니다”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15일 오전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2011 하반기 중견 신입행원에 대한 연수 입교식을 갖고 44명의 광은인 양성에 들어갔다. 연수는 1월말까지 11주간 진행되며 CEO특강·CS교육 등 다양한 직무교육으로 진행된다. <광주은행 제공>

은행-저축은행 예금 금리차 2년만에 최대

(4.17%) (5.25%)

올해 3분기 은행과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차이가 약 2년만에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상호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연 5.25%로 시중은행의 1년 이상 2년 미만 정기예금 금리 4.17%보다 1.08%포인트 높았다.

분기 기준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차가 1%포인트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09년 4분기 1.13%포인트 이후 1년9개월만에 처음이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0.49%포인트까지 좁혀졌던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금리 차이는 이후 지난 8월에는 1.18%포인트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해 4월 1.22%포인트 이후 최대다.

이처럼 은행과 저축은행 간 예금금리차가 확대된 것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들이 예금인출을 막고

수신 여력을 키우기 위해 예금금리를 올린 반면 은행은 선진국발 재정위기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안전자산을 찾는 자금이 유입된 데다 한국은행이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최근 저축은행 예금금리도 하향세를 타기 시작한 만큼 은행과의 격차는 다시 좁혀질 가능성

이 있다. 이미 저축은행 예금금리는 지난 8월 5.36%에서 9월 5.14%로 한 달 사이 0.22%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은행의 예금금리는 4.18%에서 4.09%로 하락해 두 기관 간 금리차는 1.18%포인트에서 1.05%포인트로 좁혀졌다. 또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4.63%로, 4%대 중·후반까지 내려앉았다. /연합뉴스

카드사 현금서비스 고금리 여전

삼성 등 24~30%대...서민가계 부실화 지속

신용카드사들이 고금리 현금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어 저소득층 고객에 적지않은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7개 대형 신용카드사 가운데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는 지난 10월에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회원 가운데 절반 이상에게 24~30% 미만의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

삼성카드 이용회원의 56.92%가 24~28%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았고 하나SK카드가 51.88%였다. 이어 신

한카드(39.17%), 현대카드(36.97%), 비씨카드(36.01%), 롯데카드(32.52%), KB국민카드(28.17%)의 순이었다.

신용카드사의 평균 현금서비스 금리가 22%대이고 대부분이 39%대 인접을 고려하면 이들 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다수의 고객이 상당히 높은 금리를 떠안고 있음을 보여 준다.

고금리 현금서비스를 받는 대부분의 경우는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 계층에 많아 서민 가계의 부실화를 가

속화한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삼성카드의 올해 상반기에 현금서비스 실적이 4조4999억원에 달했으며, 하나SK카드는 1조3466억원, 현대카드는 4조1192억원이었다.

특히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 현대카드는 자사 적용금리별 이용회원 분포에서 최고 금리 영역인 28~30% 미만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마디로 이들 카드사는 고금리 장사에 집중해 현금서비스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롯데카드는 28~30% 미만의 금리를 적용하는 회원 비중이 18.92%, KB국민카드는 16.77%, 현대카드는 16.34%에 달했다. /연합뉴스

광주업체가 만든 러 목재펠릿 첫 반입

<연료용>

탑인프라, 인천항 3200t 하역

내년부터 年 10만t 국내 공급

광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로 러시아에서 생산한 목재펠릿이 국내에 처음 들어왔다.

광주지역 신재생에너지 개발업체인 (주)탑인프라(대표 박찬진)는 최근 러시아 하바로브스크에서 제조한 목재펠릿 3200t을 전용 운반선을 통해 인천항으로 들여왔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 가공공장에서 생산된 펠릿을 수입한 경우는 있었지만 국내 기업이 현지에 가공공장을 세워 제조한 펠릿을 반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목재펠릿(wood pellet)은 제재톱밥 또는 숲가꾸기 산물을 톱밥으로 제조한 뒤 압축해 만든 작은 분필 형태의 목재연료다. 이번에 들어온 펠릿은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펠릿 1만3000t의 25%에 이르는 물량으로, 열병합발전과 원예농가 시설하우스 난방 등에 쓰이게 된다.

광주 첨단산단 입주업체인 탑인프라는 러시아 산림자원개발 투자신고 1호로, 지난 2009년 5월 러시아 현지법인 '탑인프라루스'를 설립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광주지역 업체인 탑인프라가 러시아에서 생산한 목재펠릿 3200t을 인천항으로 들여와 하역하고 있다. <탑인프라 제공>

에는 시간당 4t 규모의 우드펠릿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인근에 제2공장 설립을 위한 추가 투자도 마쳤다.

이 회사는 지난 2년간 러시아 하바로브스크지역에서 목재가공 사업을 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같은 신뢰에 따라 하바로브스크 정부는 탑인프라의 원자재 확보를 위해 인근 산림지역 벌채권을 허가했다.

임목 부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 탑인프라는 제2공장에서 내년부터 최소 20년간 연 10만t 규모의 목재펠릿을 생산해 전량 국내에 공급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신세계 수공예 판로 지원

공예산업진흥회 등 4개 기관과 협약

(주)광주신세계는 15일 광주신세계 대회의실에서 광주 우수 수공예품 판로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재)광주디자인센터(원장 윤광호), 수제품 판매법인 (유)마리치(대표이사 정성규), 126개 수제품방 및 예비창업자를 회원으로 최근 발족한 (사)광주공예문화산업진흥회(회장 황인욱) 등 4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협약은 광주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수제공방 육성 사업'의 활성화와 지역 우수 수공예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 신세계는 협동화 상품 기획 및 개발, 우수상품 백화점 입점 등을 지원 할 예정이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지역 현직법인으로서 사회공헌 및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의 활로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롯데백 '숨쉬기 좋은 공간' 선정

업계최초 실내 공기질 인증 획득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백화점 업계 최초 실내공기질 인증을 획득해 '숨쉬기 좋은 공간'으로 선정됐다.

'실내 공기질 인증'은 한국표준협회(KSA)와 연세대학교가 공동으로 개발한 '아이숨지수'모형을 활용해 기업 및 단체 이용공간의 실내공기질과 그 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라돈·석면 등 1급 발암물질과 일산화탄소·미세먼지·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총 12가지 항목을 평가해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아이숨지수' 모형을 토대로 실내 이용공간의 미세먼지 등 총 12개 항목 측정 결과 실내공기질 관련 설비 및 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실내 공기질 인증 업체'로 선정됐다. /최재호기자 lion@

www.topinfra.co.kr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식회사탑인프라

TOPINFRA CO., LTD.

환경과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독보적인 기술 노하우와 다양한 시공경험으로 건축, 전기공사 및 토목공사와 저탄소 녹색환경, 태양광발전시설 건설, 바이오매스(우드펠릿), 펠릿 난방기 등 환경친화 건설산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바른 기업으로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기업입니다.

(주)탑인프라는 미래로 향한 길이며, 그 길 위의 주인공은 바로 고객입니다.

회사가 하는 일

- 토목 건축/전기공사
- 우드펠릿 러시아 생산공장 운영 및 제품판매
- 우드펠릿 사용, 난방기기 설계 제조 및 공급
-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유지보수
- 주택용 태양광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회사의 특징

- 하도급업체 현금성 결제 100% 우수업체
- ISO9001, ISO14001 (환경, 품질부문)인증기업
- 신재생에너지설비 A/S수행업체 지정
- 녹색환경대상 저탄소 녹색성장 경영부문 특별상
-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중소기업청)
- 기업부설 연구소

주식회사탑인프라

TOPINFRA CO., LTD.

본 사 :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9-51번지 TEL.062-574-2088

공 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 965번지 TEL.062-945-2081~2